

이윤호 작가와의 인터뷰

일시: 2012년 11월 3일

장소: Space Willing n Dealing

인터뷰 진행 및 기록: Space Willing n Dealing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박주원 ("박"으로 표기)

인터뷰 대상 작가: 이윤호 작가 ("이"로 표기)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11월의 초입, 첫 공식 개인전 <HOMEMASS>의 문을 연 이윤호 작가를 Space Willing n Dealing에서 만났다. 2009년 서울에서 열린 페차쿠차 20x20 프레젠테이션¹에서 신인 작가로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는, 스스로 포토계의 코믹장르를 개척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홍익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도시공학을 공부했던 이윤호는 애초 미대와는 거리가 먼 학생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조소과 친구들을 만나며, 조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조소를 부전공으로 선택하면서 졸업 전시에서 자신의 첫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했다.

박: 어찌 보면 이윤호 작가님의 첫 전시는 조소과 졸업전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때는 어떤 작업을 하셨나요?

이: 둘 다 설치 조각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는 실외 조각 다른 하나는 실내에 권투 샌드백들을 설치한 거였어요. 작은 샌드백 두 개와 커다란 샌드백 하나를 합쳐서 남성의 성기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은 설치였어요. 실외 조각도 주변에 잡동사니들을 주워 모아서 커다란 기둥을 만든 것이었죠.

박: 그럼 그 때부터 주변 사물들이나 환경을 주로 주제로 삼으셨던 건가요?

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바로 찍을 수 있도록,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무언가를 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사를 나가거나 하지는 않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찍는 거예요.

박: 이번 전시 제목인 <HOMEMASS>에서도 나타나듯, 굳이 주변 사물들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주제로 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먼저 <HOMEMASS>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제가 살림 뭉치들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라는 뜻에서요. 굳이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관심을 갖는다고

¹ 페차쿠차 20x20 프레젠테이션, 페차쿠차는 일본어로 재잘재잘이라는 뜻으로 창조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이다. 젊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등용문이자 각 분야의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매 회 건축, 디자인, 예술 분야에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나 신인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기성작가들 12명을 선정되어, 한 작가당 20개의 이미지들을 한 개당 20초씩 쉬지 않고 발표하는 20x20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진다.

보다는 일단, 인물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불편해요. 보시다시피 전시된 모든 사진 작품들에는 인물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죠. 인물을 찍을 때 직면하게 되는 사람의 시선 같은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찍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사물이나 풍경을 찍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많이 찍게 되는 사물이나 풍경은 있어요. 버려진 개업식 축하 화분이라든지, 그건 저도 모르게 찍어 놓은 게 많아서 나중에 개업식 화분 사진만 모아 컬렉션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것들을 의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화분들을 볼 때, 제가 그것들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주변 사물이나 환경들을 주제로 삼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한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 스스로 사진을 찍을 때에도 그렇게 이유를 말한다거나, 정의를 내리려는 노력을 일부러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저 자신도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즐기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 그럼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신 건 언제부터였나요?

이: 사실은 제 삼촌이 사진 작가이셨어요. 건설 노동자들이나 시위 현장들을 주로 찍으셨는데, 어느 날 삼촌이 누나에게 필름 카메라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서 사진 동아리를 보게 되었는데, 문득 집에 있는 필름 카메라가 생각이 나서 그 동아리에 가입하고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사진을 찍는 기술이나, 인화하는 방법 같은 것은 그곳에서 거의 다 배웠죠. 하지만 그 때 배운 사진촬영 기법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때는 사진의 구도 같은 것들을 자로 잰 듯 맞추어 모두 천편일률적인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전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에 했던 작업들은 구도가 항상 같았어요. 항상 정면에 수평, 수직 구도를 딱 맞추어 사진을 찍어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각각 사물에 따라 그림이 재미있게 나오는 구도들이 다르고, 오히려 구도를 맞추지 않고 상황에 맞게 찍는 것이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박: 일부러 항상 같은 구도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몇몇 사진들에서 초점이 맞지 않거나 앵글이 빗나간 것들은 일부러 의도를 하신 건가요?

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는 항상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SLR도 있지만, 그것들은 꽤 무게가 나가서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는데 무리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필름 카메라의 경우,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보는 것과 현상 후 사진의 모습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과 인화 후 모습이 일대일로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물론 SLR 카메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휴대성이 제게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박: 요즘 많이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가볍고 성능도 좋잖아요.

이: 필름 카메라를 쓰는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저는 필름으로 인화된 사진의 느낌을 더 좋아해요.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필름 카메라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 다르죠. 필름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데이터로 남는다는 점이 안심이고요.

박: 이번 전시 <HOMEMASS>에서 가장 재미있다고 느끼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 저는 이번에 나온 작품 중 *페차*나 *CCTV*를 찍을 때, 특별히 재미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은 제가 필터를 사용해서 찍은 작품들인데, 각각 다른 종류의 필터들을 사용할 때마다 사진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좋아요. *페차* 같은 경우에는, 낡고 볼품없는 차이지만, 필터를 사용해 반짝반짝 광이 나는 효과를 주었거든요.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사진으로 표현하는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박: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제가 작품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예뻐야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야 되요. 전에 포토계의 코믹장르를 개척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제가 재미있다고 느꼈던 상황이나 사물들에 대해 관객들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감각을 사진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죠. 제게 있어 사진은 가장 쉽게 그런 느낌들을 전달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도구예요.

박: 이번 HOMEMASS전에서 처음으로 설치 작업들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설치작품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사진은 찍을 거고요. 설치하는 사실 졸업 작품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었어요. 이번 개인전을 하면서 그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다 해보라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 시도해 본 것인데, 설치도 재미있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러한 설치 작품들도 사진과 같은 맥락에 있어요.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보는 사물들, 꽃집 앞에 화분을 높게 쌓아둔 광경이나 개업식에 스카이드랜서 (춤추는 바람인형), 간판 같은 것들이죠. 여기에 재미있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아가시오* 라는 표지판은 be dead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제게는 '돌아가시오'라는 말이 돌아가시다, 즉 '죽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주변의 소소한 재미들을 찾는 거죠.

박: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직접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며,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글_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박주원

이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 있으며, 사용 시 출처와 저자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